

K兄께 보내는 受驗便紙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학사)
- 덕수상업고등학교



조재연

『경력사항』

- 현) 대법원 대법관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0년도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I. 처음에

일전에兄을 뵈었을 때는兄의 얼굴에서 受驗生活의 고달픔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兄의 충실한 준비에 마음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고생이 가슴이 메었습시다. 몇 개월 전의 제 모습도兄과 같이 초라하였음은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시다.

특히 試驗科目이 변경될 때에 초조해 하시며 불안해 하시던兄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모르고서 지나쳐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정보수집에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군요. 그리

고 관계서 새로운 憲法이 어떻게 출제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작년에 확정된 안된 改正案에 매달려서 苦心했었지요. 이것이 어찌면 受驗生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입법취지등은 알아두어야 하리라 봅니다. 또 과거의 내용과 달라진 점도 노트정리를 간단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마십시오. 출제 가능성이 큰 것은 역시 변하지 않는 基本的 原理에 관해서이니까요.

兄과 함께 공부해서 먼저 合格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외람되나마 몇 가지 제 느낌을 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온 눈물 어린 忍苦의 세월을 청산할 기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삼아 제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II. 경험의 착각

兄이 공부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로서는 兄의 그 충실한 태도를 경탄하면서도 그 效率性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져옵니다. 兄께서는 언제나 풍부한 자료와 多數의 교과서를 비교하시면서 두툼한 교과서를 자랑하시곤 하셨지요. 그러나 최종정리단계에 가서 그 많은 分量을 정리하고 줄이기 위해 당황하시던 작년의 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어찌면 兄께서는 지나치게 완벽을 기한 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닐런지요?

지엽적으로는 다소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과목에 걸쳐서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兄의 그 완벽주의는 이제 좀 완화하심이 어떨런지요? 특정부분 또는 과목에 완벽을 기함도 좋겠지만 흘론을 치려고 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알아서 확실한 내야안타를 노리는 것이 合格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소에 늘 열심히 해 두고 또 기말시험이라도 본 문제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시험직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회상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兄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을 절대로 산만히 해 두지 마시고 요약정리하여 시험직전에 대비하십시오.

III.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兄께서는 아직도 공부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와 공부하실 때도 항상 兄이 1/3정도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의 持論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하여 학습의 效率性을 높이자는 것이었지요. 시험이 2~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더욱 자신의 공부시간이 합격에 충분

한가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4시간 자면서 흐릿한 상태로 그저 책상만 지키는 것보다는 8시간 자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시촌 같은 곳에서는 식사시간 때면 14시간 이니 16시간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공부시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잠자지 않은 總時間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학습한 純時間’이 얼마인가가 문제입니다. 또 어느 날 하루에 얼마를 공부했다는 것보다는 1개월에 평균 얼마를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受驗生으로서 하루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다면 시험 전 3개월간에 있어서도 대개 하루 평균 8~10시간 정도 순수하게 학습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뉘께서는 공부를 쫓금쫓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뉘께서는 50분 학습에 10분 휴식이라는 학습이론을 실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시공부라는 것은 마치 감자밭에서 감자뿌리들을 들어 올리듯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시공부 하기가 어려운 이유의 하나도 집중적인 공부가 되지 못하고 틈나는대로 쫓금쫓금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더욱 긴장이 더해지는 시기이겠습니다만 뉘께서는 적어도 공부시간의 多少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IV. 일목요연한 정리

소위 기본서 單券主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서 單券主義는 확실히 受驗者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은데 兄의 교과서를 보면 기본서가 지나치게 두껍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험 때에 제가 겪은 바로도 기본서 중간에 끼워놓았던 참고 자료 때문에 오히려 기본서 전체를 통독 하는데 불편이 컸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서에는 아주 중요한 메모나 자료만 첨부하여 놓은 것이 최종 정리를 위하여 좋을 까 합니다. 이미 뉘께서는 다 마치셨을 줄 알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언더라인에도 차이를 두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꼭 기본서를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V. 모의시험에의 응시

뉘께서는 항상 자신의 글식에 대해서 고민하셨지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필체를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니 그 점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글씨가 惡筆이라고 소문 난 사람도 거뜬히 합격하는 수가 많은 듯하니까요.

돌이켜보니 글씨보다도 몇 배 중요한 문제가 초안작성 즉 문제파악이라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지난 시험을 끝내고 좀더 성실한 마음으로 신중히 문제에 접하고 초안을 작성했다라면 하는 반성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시험보는 수험생치고 성실하게 초안을 잡지 않는 수험생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다하게 평면적으로 나열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위 출제의도를 파악하려 몇 가지 論點을 부각시켜 입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쌓은 실력에 의존하겠으나 부분적으로는 훈련과 시험에 임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兄께서는 언제나 제1문 문제에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時間안배에 실패하여 결국 1年の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도 흔히 있다고 하더군요. 단답형 문제에서는 그것이 본래 큰 문제로 출제될 성질이면 잘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분적인 論點에 관한 것이면 집중적으로 論點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니 문제가 어느 성질의 것인지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兄께서 금년에는 모의시험이라도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연습해 두심이 유익할 듯합니다.

兄께서는 케이스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할 때 별도로 케이스에 대비한 준비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몇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셔서 答案작성에 자신을 갖도록 해 두시면 좋겠지요. 케이스 문제에서는 3~4개 정도의 핵심되는 論點과 2~3개 정도의 관련되는 論點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추출해 내심이 선결문제입니다.

VI. 合格의 기쁨을 나눌 때까지

K兄! 이제 더욱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지요. 兄께서 시험을 얼마 앞두고 감기로 고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때 우리들은 그 얼마나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혔던가요. 受驗生으로서의 성실한 마음가짐이 곧 건강유지의 길인지도 모르겠지요. 진정한 축배를 위하여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잠시 동안만 참으셔야겠군요. 至誠이면 感天이라 하였으니, 兄께서 그동안 흘리신 땀이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을 것으로 믿습니다. 灰色터널의 저쪽 끝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지요?

그럼 合格의 기쁨을 나눌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기 빌며 펜을 놓습니다.